

실적 모멘텀 강화로 고공 행진!

2009년 9월 2일

Analyst

정홍식

02) 2009-7083

hsjeong@leading.co.kr

- 휴대폰 부품업체 지수, 휴대폰 Benchmark 지수 대비 9.6% Outperform
- 8월 휴대폰 내수판매 200만대 기록
- 글로벌 휴대폰 시장, 2009년 1분기 바닥을 확인하고 회복세 시현 중
- 텔레칩스 - 2010년을 위한 준비 기간
- 피앤티엘 - 자회사를 통한 성장 모멘텀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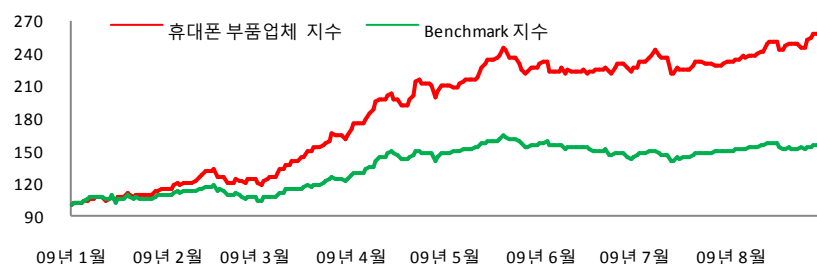
▶ Summary

8월 휴대폰 부품업체 지수는 전월대비 11.7% 상승한 260pt를 기록하였고, 휴대폰 Benchmark 지수는 전월대비 2.1% 상승한 153pt를 기록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휴대폰 부품업체 지수는 Benchmark 지수 대비 한달 동안 9.6% Outperform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는 1) 휴대폰 부품업체들이 2분기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하면서 하반기 실적 모멘텀이 강화되었고, 2) 국내 휴대폰 완성업체들의 글로벌 시장점유율 상승추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8월 국내 휴대폰 판매량이 전월대비 22.1% 감소한 200만대를 기록하였다. 전월 대비로는 감소하였지만 최근 1년간 월평균 휴대폰 내수 판매가 185만대임을 고려하면 8월 휴대폰 내수 판매는 과열된 시장에서 점차 정상수준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동통신 서비스 업체들의 시장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마케팅 강화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휴대폰 제조사들이 High-End 제품을 주축으로 전략제품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9월 내수판매의 감소폭은 8월과 같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휴대폰 수요는 2009년 1분기에 저점을 기록한 이후 2분기에는 전분기대비 13% 이상 상승하며 회복되는 과정에 있다.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북미와 유럽시장에서 High-End 제품을 주축으로 수요 증가세가 나타났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휴대폰 제조사들의 신제품 출시와 공격적인 마케팅 활성화로 글로벌 휴대폰 수요는 2009년 1분기를 저점으로 턴어라운드 하고 있다.

[그림1] 2009년 이후 휴대폰 부품업체 지수



자료: 리딩투자증권

참고: 2009년 1월 첫 영업일 기준 = 지수 100

▶ 휴대폰 부품업체 지수, 휴대폰 Benchmark 지수 대비 9.6% Outperform

2009년 연초 이후 휴대폰 부품업체 지수(당사추정)는 휴대폰 Benchmark 지수(당사추정) 대비 106.6% 초과수익([그림1] 참고)을 보이며 큰 폭의 상승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8월 휴대폰 부품업체 지수는 전월대비 11.7% 상승한 260pt를 기록하였고, 휴대폰 Benchmark 지수는 전월대비 2.1% 상승한 153pt를 기록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휴대폰 부품업체 지수는 Benchmark 지수 대비 한달 동안 9.6% Outperform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는 1)휴대폰 부품업체들이 2분기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하면서 하반기 실적모멘텀이 강화되었고, 2)국내 휴대폰 완성업체들의 글로벌 시장점유율 상승추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북미시장과 유럽시장 등의 선진국 시장에서 High-End 휴대폰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내 휴대폰 부품업체들은 마진율이 상대적으로 좋은 고부가가치 제품의 판매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이 같은 실적모멘텀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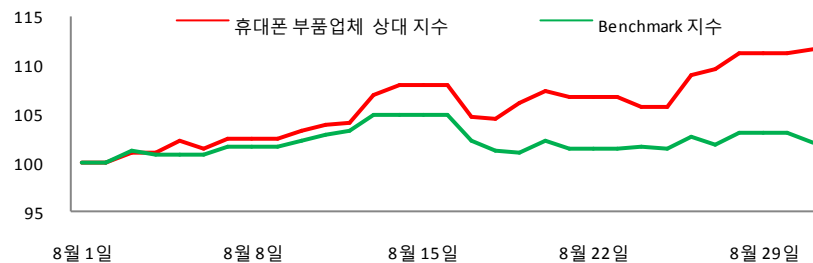
◦ 휴대폰 부품업체 지수

→24개 휴대폰 부품업체의 주가상승률을 산술평균한 지수 (5page [표2] 참고)
(2009년 1월 2일 100기준)

◦ 휴대폰 Benchmark 지수

→24개의 휴대폰 부품업체들의 시장구분을 고려하여 KOSPI INDEX와 KOSDAQ INDEX를 가중평균한 지수 (2009년 1월 2일 100기준)

[그림2] 8월 휴대폰 부품업체 상대 지수



자료: 리딩투자증권

참고: 2009년 8월 첫 영업일 기준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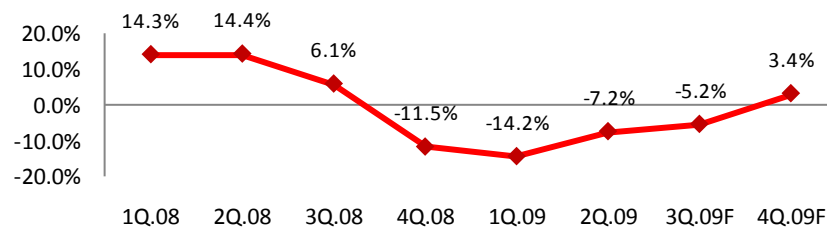
▶ 8월 휴대폰 내수판매 200만대 기록

지난 8월 국내 휴대폰 판매량은 전월대비 22.1% 감소한 200만대를 기록하였다. 전월 대비로는 감소하였지만 최근 1년간 월평균 휴대폰 내수 판매가 185만대임을 고려하면 8월 휴대폰 내수 판매는 과열된 시장에서 점차 정상수준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6월 휴대폰 내수 판매는 사상 최초로 300만대를 넘어섰고 7월에도 250만대를 넘어서며 과열양상을 보였지만 8월에는 정부의 보조금 축소,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 등으로 다소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동통신 서비스 업체들의 시장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마케팅 강화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휴대폰 제조사들이 High-End 제품을 주축으로 전략제품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9월 내수판매의 감소폭은 8월과 같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글로벌 휴대폰 시장, 2009년 1분기 바닥을 확인하고 회복세 시현 중

글로벌 휴대폰 수요는 2009년 1분기에 저점을 기록한 이후 2분기에는 전분기대비 13% 이상 상승하며 점차 회복되는 과정에 있다.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북미와 유럽시장에서 High-End 제품을 주축으로 수요 증가세가 나타났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휴대폰 제조사들의 신제품 출시와 공격적인 마케팅 활성화로 글로벌 휴대폰 수요는 2009년 1분기를 저점으로 턴어라운드 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을 중심으로한 High-End 제품군의 다양화로 선진시장의 휴대폰 교체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과 인도를 중심으로 이머징 마켓에서의 이동통신 가입자수가 늘어남에 따라 Low-End 제품군의 신규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분기 글로벌 휴대폰 수요는 전년 대비 약 5.2% 감소하나 전분기 대비로는 4.4% 증가한 2.85억대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4분기에는 성수기 특수으로 전년 대비 약 3.4% 증가한 2.98억대 수준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2009년 글로벌 휴대폰 수요는 약 10.97억대로 전년 대비 5.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연초 당사 예상치 수준인 10.58억대보다는 3.7%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3] 글로벌 휴대폰 수요 증가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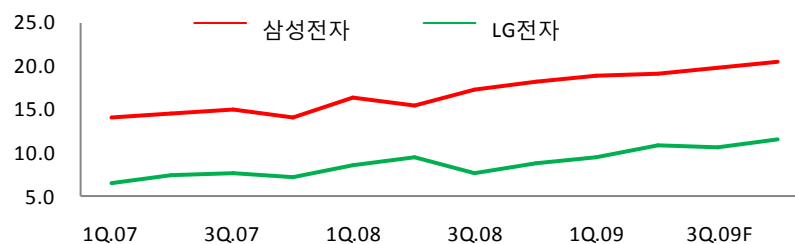


자료: 각사, 리딩투자증권

▶ 2009년 국내 휴대폰 업체들의 약진

국내 휴대폰 제조사인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글로벌 시장점유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7년 1분기 기준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글로벌 휴대폰 출하량은 각각 3위, 5위인 14.2%, 6.4% 수준이었으나 2009년 2분기에 들어서는 글로벌 M/S 각각 2,3위를 기록하며 19.2%, 10.9%로 고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다른 글로벌 휴대폰 제조사와는 달리 다양한 제품 라인업으로 소비자들의 needs를 충족시키고 있으며 프리미엄 폰을 주축으로 북미와 유럽시장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3분기에도 이 같은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글로벌 M/S는 각각 20.0%(5,690만대), 10.8%(3,070만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4] 삼성전자, LG전자 글로벌 시장점유율 (단위: %)



자료: 각사, 리딩투자증권

[표1] 글로벌 휴대폰 수요 전망

<글로벌 휴대폰 수요 전망>

	1Q.08	2Q.08	3Q.08	4Q.08	1Q.09	2Q.09	3Q.09F	4Q.09F	2008	2009F
판매수량(백만대)										
노키아	115.5	122.0	117.8	113.1	93.2	103.2	107.1	110.6	468.4	414.2
삼성전자	46.3	45.6	51.8	52.7	45.8	52.3	56.9	61.3	196.4	216.3
LG전자	24.4	27.7	23.0	25.6	22.7	29.8	30.7	34.2	100.7	117.4
소니에릭슨	23.3	24.4	25.7	24.2	14.5	13.8	14.6	15.5	97.6	58.4
모토로라	27.4	28.1	25.4	19.2	14.7	14.8	15.2	15.6	100.1	60.3
RIM	4.4	5.3	6.1	6.7	7.3	7.6	9.9	11.0	22.5	35.9
애플	1.7	0.8	6.9	4.4	3.8	2.9	4.6	5.8	13.8	17.1
기타	37.5	40.3	43.8	42.3	38.8	48.6	45.8	43.9	163.9	177.2
합계	280.5	294.2	300.5	288.2	240.8	273.0	285.0	297.9	1,163.4	1,096.7
M/S(%)										
노키아	41.2	41.5	39.2	39.2	38.7	37.8	37.6	37.1	40.3	37.8
삼성전자	16.5	15.5	17.2	18.3	19.0	19.2	20.0	20.6	16.9	19.7
LG전자	8.7	9.4	7.7	8.9	9.4	10.9	10.8	11.5	8.7	10.7
소니에릭슨	8.3	8.3	8.6	8.4	6.0	5.1	5.1	5.2	8.4	5.3
모토로라	9.8	9.6	8.5	6.7	6.1	5.4	5.3	5.2	8.6	5.5
RIM	1.6	1.8	2.0	2.3	3.0	2.8	3.5	3.7	1.9	3.3
애플	0.6	0.3	2.3	1.5	1.6	1.1	1.6	2.0	1.2	1.6
기타	13.4	13.7	14.6	14.7	16.1	17.8	16.1	14.7	14.1	16.2

<삼성전자 휴대폰 수요 전망>

	1Q.08	2Q.08	3Q.08	4Q.08	1Q.09	2Q.09	3Q.09F	4Q.09F	2008	2009F
판매수량(백만대)										
아시아	15.4	15.8	12.3	14.2	13.7	15.8	16.2	18.9	57.7	64.5
(국내)	3.0	3.8	2.6	2.0	2.5	4.2	3.1	2.4	11.4	12.2
유럽	13.1	12.7	16.2	19.0	13.5	14.3	16.2	20.0	61.0	63.9
북미	8.8	8.4	11.1	10.8	11.4	12.2	11.2	11.4	39.1	46.2
중남미	3.7	3.7	4.3	4.0	2.9	4.7	4.6	5.2	15.7	17.5
기타	5.3	5.0	7.9	4.7	4.3	5.3	8.8	5.8	22.9	24.2
합계	46.3	45.6	51.8	52.7	45.8	52.3	56.9	61.3	196.4	216.3
M/S(%)										
아시아	33.3	34.6	23.7	26.9	29.9	30.2	28.4	30.8	29.4	29.8
(국내)	6.5	8.3	5.0	3.8	5.5	8.0	5.5	4.0	5.8	5.7
유럽	28.3	27.9	31.3	36.1	29.5	27.3	28.4	32.6	31.1	29.6
북미	19.0	18.4	21.4	20.5	24.9	23.3	19.7	18.7	19.9	21.4
중남미	8.0	8.1	8.3	7.6	6.3	9.0	8.2	8.5	8.0	8.1
기타	11.4	11.0	15.3	8.9	9.4	10.2	15.4	9.4	11.7	11.2

<LG전자 휴대폰 수요 전망>

	1Q.08	2Q.08	3Q.08	4Q.08	1Q.09	2Q.09	3Q.09F	4Q.09F	2008	2009F
판매수량(백만대)										
아시아	6.4	7.7	3.7	5.9	4.7	6.8	7.5	8.6	23.7	27.6
(국내)	1.8	1.9	1.4	1.2	1.4	2.4	2.0	1.7	6.3	7.5
유럽	3.1	3.7	3.0	4.4	4.3	5.5	5.0	6.4	14.2	21.2
북미	8.4	9.3	10.4	9.5	8.7	10.2	10.6	10.9	37.6	40.4
중남미	5.1	5.8	5.0	4.8	3.6	5.2	5.6	6.1	20.7	20.5
기타	1.3	1.3	0.8	0.9	1.5	2.2	2.0	2.2	4.3	7.9
합계	24.3	27.8	22.9	25.5	22.8	29.8	30.7	34.2	100.5	117.5
M/S(%)										
아시아	26.3	27.7	16.2	23.1	20.6	22.7	24.5	25.1	23.6	23.5
(국내)	7.4	6.8	6.1	4.7	6.1	8.2	6.4	4.9	6.3	6.4
유럽	12.8	13.3	13.1	17.3	18.9	18.4	16.4	18.6	14.1	18.0
북미	34.6	33.5	45.4	37.3	38.2	34.1	34.6	31.9	37.4	34.4
중남미	21.0	20.9	21.8	18.8	15.8	17.4	18.1	17.9	20.6	17.4
기타	5.3	4.7	3.5	3.5	6.6	7.4	6.4	6.5	4.3	6.7

자료: 각사, 리딩투자증권

[표2] 휴대폰 부품업체

	종목코드	기업명	현재가 (원)	시가총액 (억원)	2009F EPS (원)	PER (배)	시장구분
키패드	A049520	유아이엘	7,880	898	1,419	5.55	KOSDAQ
	A093920	서원인텍	6,360	1,183	729	8.72	KOSDAQ
케이스	A054340	피앤티	13,250	2,226	1,866	7.10	KOSDAQ
	A049070	인탑스	18,950	1,630	3,878	4.89	KOSDAQ
ASIC	A054450	텔레칩스	13,250	1,399	1,543	8.59	KOSDAQ
	A048870	코아로직	4,955	470	224	22.12	KOSDAQ
PCM	A038990	넥스콘테크	8,600	1,479	348	24.73	KOSDAQ
	A047310	파워로직스	11,600	1,519	1,509	7.69	KOSDAQ
хин지	A060720	KH바텍	37,450	2,996	5,789	6.47	KOSDAQ
	A093230	셀라인	11,800	1,131	2,031	5.81	KSE
터치스크린	A091690	디지텍시스템	26,950	3,693	1,728	15.59	KOSDAQ
	A051360	토비스	5,970	771	1,030	5.80	KOSDAQ
	A094190	이엘케이	17,000	1,656	886	19.19	KOSDAQ
안테나	A079190	EMW안테나	10,400	652	1,940	5.36	KOSDAQ
	A088800	에이스안테나	7,400	370	1,000	7.40	KOSDAQ
	A032500	케이엠더블유	6,140	989	193	31.89	KOSDAQ
FPCB	A051370	인터플렉스	6,470	796	1,276	5.07	KOSDAQ
	A004130	대덕GDS	10,550	2,171	1,502	7.02	KSE
브라우저	A041020	인프라웨어	37,050	2,851	1,091	33.94	KOSDAQ
카메라부품	A033240	자화전자	8,800	1,568	786	11.19	KSE
	A081580	성우전자	7,820	571	1,905	4.10	KOSDAQ
	A091700	파트론	13,650	2,729	1,272	10.73	KOSDAQ
기타	A052710	아모텍	5,040	488	620	8.13	KOSDAQ
	A080420	이노칩	7,670	1,143	212	36.16	KOSDAQ

자료: FnGuide, 리딩투자증권

참고: 현재가 및 시가총액: 2009년 8월 31일 종가기준

2009F EPS: 시장컨센서스 적용, 단 서원인텍, 대덕GDS, 유아이엘, 피앤티, 텔레칩스는 리딩투자증권 추정
 상기 종목들은 휴대폰 부품 기업군을 나열한 것으로서 추천종목이 아니며(서원인텍, 대덕GDS, 피앤티, 텔레칩스 제외), 단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텔레칩스 (054450)

BUY(신규)

2010년을 위한 준비 기간

2009년 9월 2일

Analyst

정홍식 2009-7083

hsjeong@leading.co.kr

KOSDAQ / IT

적정주가	18,000 원
현재가(9/1)	13,250 원
투자의견	매수(Initiation)
상장주수	10,561 (천주)
자본금	50 (억원)
액면가	500 (원)
시가총액	1,399 (억원)
외국인지분	9.79 (%)
52주 최고가	14,200 (원)
52주 최저가	4,955 (원)
거래량(60일 평균)	56,866 (주)
거래대금(60일 평균)	6.5 (억원)
KOSDAQ	516.27 (pt)
주가수익률	
1개월	29.90 (%)
3개월	0.38 (%)
12개월	26.19 (%)

□ 비메모리 반도체 팹리스 업체

텔레칩스는 Portable Device의 Multimedia SOC Controller를 생산하는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 전문업체로서 휴대폰, PMP, MP3 등의 제품에 반도체 칩을 공급하고 있다. 동사는 Multimedia Solution을 설계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제조는 아웃소싱을 통하는 팹리스(fabless) 업체이기 때문에 설비투자 위험이 낮고 능률적인 기업 구조를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신규칩 적용으로 본격적인 실적 개선 기대

동사의 성장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는 신규칩(TC8900)은 ARM11 Core를 기반으로 한 Application Processor로서 High-End 사양의 스마트폰, 네비게이션, PMP 제품에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신규칩은 지난 4월에 개발이 완료된 이후 현재 고객사로의 활발한 마케팅이 진행 중에 있어 빠르면 4분기에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내년에는 그 성과가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안정적인 재무구조

동사는 무차입 경영을 실시하고 있으며 2분기말 기준 자기자본 부채비율은 7.4% 수준으로 매우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2004년 상장 이후 매분기 흑자를 이어가고 있으며 평균 영업이익률도 18.0% 수준으로 안정적인 수익성을 보이고 있다.

□ 적정주가 18,000원, '매수'의견 제시하며 기업분석 개시

텔레칩스에 대해 적정주가 18,000원으로 '매수'의견을 제시하며 커버리지를 개시한다. 적정 주가는 동사의 12개월 Forward EPS 대비 적정 PER 9.0배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적정 PER은 동사의 과거 3년 평균치로서 1)신규칩이 스마트폰 등의 High-End Portable Device에 적용되어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적 개선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되며, 2)무차입 경영 및 설비투자가 낮은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있고, 3)현재 12개월 Forward EPS 대비 PER은 6.6배 수준으로 Valuation 매력이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정 PER 9.0배 달성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표] 텔레칩스 - 영업실적 및 투자지표 요약

	매출액	영업이익	세전이익	순이익	EPS	PER	EV/EBITDA	PBR	ROE
	(억원)	(억원)	(억원)	(억원)	(원)	(배)	(배)	(배)	(%)
2006	620	115	122	119	1,464	13.0	9.8	3.2	27.3
2007	841	162	178	182	1,812	7.9	5.3	2.2	31.5
2008	892	158	185	208	2,061	3.3	0.7	0.8	27.4
2009F	812	106	144	163	1,543	8.6	4.0	1.4	17.6
2010F	1,109	198	244	236	2,235	5.9	2.0	1.1	21.2

자료: 텔레칩스, 리딩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피애펀텔 (054340)

BUY(유지)

자회사를 통한 성장 모멘텀 확보

2009년 9월 2일

Analyst

정홍식 2009-7083

hsjeong@leading.co.kr

KOSDAQ / IT

적정주가	16,000 원
현재가(9/1)	13,600 원
투자의견	매수(유지)
상장주수	16,800 (천주)
자본금	84 (억원)
액면가	500 (원)
시가총액	2,285 (억원)
외국인지분	18.6 (%)
52주 최고가	13,600 (원)
52주 최저가	2,795 (원)
거래량(60일 평균)	392,119 (주)
거래대금(60일 평균)	45.7 (억원)
KOSDAQ	516.27 (pt)
주가수익률	
1개월	12.40 (%)
3개월	28.91 (%)
12개월	173.64 (%)

□ 자회사를 통한 신기술, 금속표면처리 사업 진행

피애펀텔은 사업 다각화를 위하여 지분 56.5%를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코리아 유니테크를 통한 금속 표면처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금속 표면처리 기술을 적용한 휴대폰 케이스의 차별화로 동사의 기술 경쟁력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것으로 보이며, 향후 마그네슘 소재 업체와의 M&A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여 자회사를 통한 성장 동력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 3분기 의미 있는 실적 기대

삼성전자의 주력 모델인 제트폰 케이스 물량의 약 50~60% 공급효과와 현지 부문에서의 안정적인 매출 성장에 힘입어 2009년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25.0%, 95.1% 증가한 814억원, 80억원으로 큰 폭의 실적 개선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분기 기준 최대 매출이며, 주요 고객사인 삼성전자 주력 모델의 메인 벤더로서 휴대폰 케이스 부문의 매출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에 의미를 둘 수 있다.

□ Valuation 메리트 부각

주력 사업인 휴대폰 케이스 및 현지 부문에서의 안정적인 성장세와 자회사를 통한 사업다각화 진행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여전히 저평가 되어 있다. 현재 동사의 주가는 2009F EPS 기준 PER 7.1배로 휴대폰 부품업체 평균 PER 12.6배 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어 Valuation 메리트가 높은 상태이다.

□ 적정주가 16,000원으로 적정주가 상향 조정

피애펀텔에 대해 기존 '매수'의견을 유지하며 적정주가는 종전 15,000원에서 16,000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1)자회사를 통한 사업다각화가 동사의 성장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2)전방업체인 삼성전자의 글로벌 시장점유율 상승으로 인한 휴대폰 케이스 수요 증가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3)휴대폰 주요 부품업체의 평균 PER이 12.6배(당사추정)인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적정주가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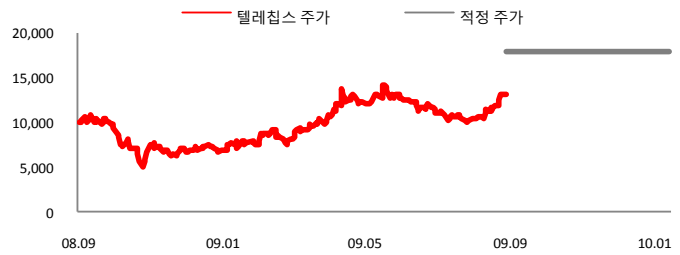
[도표] 피애펀텔 - 영업실적 및 투자지표 요약

	매출액 (억원)	영업이익 (억원)	세전이익 (억원)	순이익 (억원)	EPS (원)	PER (배)	EV/EBITDA (배)	PBR (배)	ROE (%)
2006	2,467	322	344	254	1,514	7.2	2.8	1.7	25.6
2007	2,399	150	309	223	1,330	7.7	3.6	1.3	19.1
2008	2,480	152	246	204	1,216	3.3	-	0.5	14.6
2009F	3,052	301	402	313	1,866	7.1	3.0	1.3	19.2
2010F	3,294	309	460	368	2,191	6.0	2.2	1.1	1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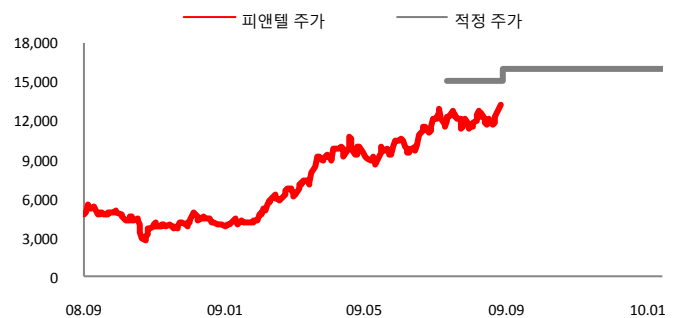
자료: 피애펀텔, 리딩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 변경

종목명	일자	투자의견	적정주가
텔레칩스	09.09.02	BUY	18,000원



종목명	일자	투자의견	적정주가
피앤텔	09.07.15	BUY	15,000원
피앤텔	09.09.02	BUY	16,000원



Compliance Note

- 본 자료를 작성한 금융투자분석사는 동 자료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정홍식)
- 당사는 보고서 작성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를 작성한 금융투자분석사는 작성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보고서 작성일 기준 해당회사와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에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지난 6개월간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의 발행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작성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기반으로 한 것이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의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무단복제, 변형 및 배포될 수 없습니다.